

NEWS LETTER

2021년 8월 02일 Vol. 414

페렴 걱정성 평가 4회 연속 최우수 ‘1등급’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폐렴 제4차 걱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9.7점으로 4회 연속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했다. 폐렴 4차 걱정성평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까지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환자에게 항생제 치료를 3일 이상 투여한 66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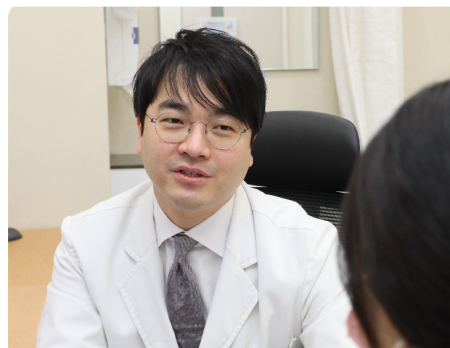
심사평가원 평가지표는 ▲(검사영역)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 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도말·배양검사 처방률, 첫 항생제 투여 전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치료영역) 병원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주사) 투여율 등 총 6개 지표에 대한 결과다.

이번 평가에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평가지표 6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입원일수가 평균보다 짧고, 초기 항생제 선택 적합성 항목에서 높은 점수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73.6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로 1등급을 획득했다.



신장내과 박재윤 교수 연구팀, 대기오염 노출 높을수록 만성콩팥병 환자에 ‘치명적’ 연구결과 발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박재윤 교수와 정지윤 박사가 최근 ‘장기간 대기오염 노출이 만성콩팥병 환자의 사망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및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3개 대학병원에 방문한 32,949명의 만성콩팥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 지표(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와 사망 연관성을 밝혀냈다. 박재윤 교수는 “최근 보고에 따르면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매년 전 세계에서 7백만 명가량의 사망 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만성콩팥병에 따른 사망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인자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환경학 최고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IF: 7.963)’에 2021년 9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만덕사 주지 정탄 스님, 병원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서울 마포 만덕사 주지 정탄 스님이 7월 2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4층 회의실에서 발전기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정탄 스님과 권범선 일산병원장을 비롯해 최기석 행정처장, 지도법사 능지 스님, 간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탄 스님은 “종립병원의 발전이 불교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지만 이병원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권범선 병원장은 “소중한 정재를 내어주신 정탄 스님께 감사드리며, 병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산 식사동 고은색어린이집, 의료진에 감사 편지 전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따뜻한 감사의 편지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일산동구 식사동 소재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코로나19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위해 직접 쓴 그림 편지를 전달했다.

어린이들은 “안녕하세요 우리를 위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닐게요” 등 고사리손으로 꾹꾹 눌러 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응급의학과 이상헌 교수는 “우편으로 전달해온 편지는 응급실 내 의료진 모두에게 공유했다”며 “무더운 여름에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위로가 됐으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